

순간의 기록, 카메라

글 허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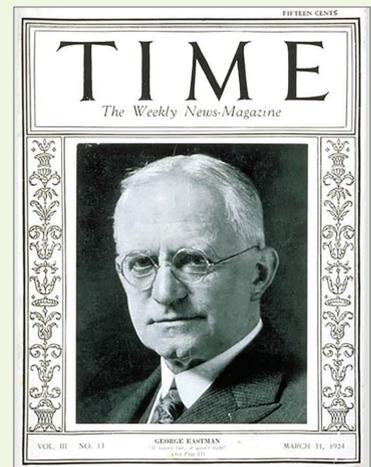
찰나의 순간을 빛으로 아로새기는 기계,
카메라는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을 작은 사각형 안에 기록해왔다.
때로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고발하는 저널리스트,
때로는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예술가의 얼굴로 모든 것을
춤춤하게 기록하고 순간마다 새롭게 구성한다.

빛을 가두다, 최초의 사진술 '다게레오'

카메라의 기원은 어두운 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라는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찾는다. 하지만 상을 본다는 점에서 카메라의 원리를 구현했을 뿐, 순간의 빛을 고정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빛을 기록하는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빛을 모으는 집광 장치 뿐 아니라 상을 고정하는 감광제와 고정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술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기술은 프랑스의 화가 다게르에 의해 탄생했다. 그는 10년 동안의 실험을 바탕으로 1839년에 다게레오 타입으로 불리는 사진술을 완성했다. 동판에 요오드 증기를 쏘아 만든 것을 감광판으로 삼아 사진을 촬영하고, 그 감광판을 수은 증기에 쏘아 상이 눈에 보이게끔 현상한 후 소금 용액을 통해 요오드화은을 동판에서 제거하는 방법이었다. 1839년 8월 19일, 프랑스의 과학아카데미와 미술아카데미는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다게르의 사진술을 공개했다.

1924년 3월, 타임의 표지 인물로 선정된 이스트먼





Camera
Obscura

발상의 전환, 휴대용 카메라의 등장

요즘은 가벼운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사진 찍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카메라는 크고 무거운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은 본인이 직접 현상하고 인화해야 했다.

이 방식에 엄청난 불편을 느낀 은행원 이스트먼은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스트먼은 영국에서 개발된 젤라틴 건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를 개량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1881년에 건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건판은 여전히 깨지기 쉽고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필름을 현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에 이스트먼은 롤 형태로 말아서 다닐 수 있는 필름에 주목했다. 1884년 1월, 이스트먼은 롤필름 시스템을 개발했고 1885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사진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스트만의 롤필름이 유리건판보다 사진의 질이 좋지 않고 필름 처리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들조차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스트만은 사진기술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스트만은 자신들의 회사가 미리 장착된 롤필름을 통해 첫 번째 단계를 간편하게 만든 카메라를 판매하는 한편, 사용한 카메라를 수거해 복잡한 현상과정을 대신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연구 끝에 1888년, '당신은 버튼만 눌러라,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롤필름을 장착한 코닥 카메라를 출시했다. 코닥 카메라의 등장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을 열광하게 했다. 대중을 위한 사진술이 발명된 것이다.



1839년에 제작된
다게레오타입 카메라



조선의 선비들, 사진관에 가다

우리나라에서 사진이라는 용어는 초상화와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인물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진영, 곧 사진이라고 불렀는데 서양에서 원래와 똑같이 그린 그림이 들어오자 그것에 사진(寫眞)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 물체를 있는 그대로 그리되(베낄 사 寫) 내면의 정신도 담아야 한다는(참 진 眞) 뜻이 이 용어에 담겨 있다. 사진술이 처음 알려진 때는 조선시대 후기인 1860년대다. 1862년 말, 이의익을 정사로 하는 동지사라는 연행단이 청나라 베이징에 파견되었다. 이 연행단이 바로 아라사관(러시아 공사관)을 찾아 러시아인에게 사진을 찍었던 최초의 조선 사람들이었다. 이의익이 일기 형식으로 당시 연행단의 일정을 기록한 연행금소록에는 일행이 사진을 촬영하게된 경위와 사진관의 모습, 촬영할 때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의익은 이 글에서 '아라사관 내부에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 머리칼 하나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렸다.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화상이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사진에 관해 묘사했다. 🐦